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28호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기습적으로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규탄한다

체육시민연대 "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한 이기흥 회장 사퇴해야"

이석무 이데일리 기자

[사설]

손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사건이 보여준 스포츠 인권의 현주소

민중의소리 기사

데일리안 오피니언

엘리트체육의 산실,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김대희 교수 데일리안 기사

2024 파리올림픽

이제까지 이런 올림픽 없었다...모든 경기 AI가 된다

임선영 중앙일보 기사

함께 운동할까요? 배리어프리(무장애)스포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 통합 위한 촉매제로서의 배리어프리 스포츠

김최환 칼럼니스트 에이블뉴스 기사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PARIS 2024



홍덕기

국립경상대 체육교육과 교수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

[뉴스민X체육시민연대]

최숙현 4주기, 스포츠 인권의 현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2Tuge8OIYdU>

LIVE

손축구 아카데미

스포츠 폭력 사건을 통해 돌아본

아동·청소년 스포츠 인권의 현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8tfvaHtl4qg>

체육시민연대 "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한 이기흥 회장 사퇴해야"

체육시민연대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체육시민단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기습적으로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체육시민단체는 “이기흥 회장은 대한테니스협회가 단체 정상화를 위해 채무탕감 약속, 회장 선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회원 단체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기흥 회장의 독단적인 권력행사를 규탄한다”며 “대한테니스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정희균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회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협회가 미디어월에 46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달 회장 선거를 열고 주원홍 전 회장을 새 회장으로 뽑은 뒤 관리 단체 지정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미디어월로부터 46억원 채무를 탕감받았다.

그러자 대한체육회는 선거를 진행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체육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테니스협회를 이날 관리 단체로 지정했다.

관리 단체가 된 테니스협회는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곧 대한체육회가 파견하는 관리 위원장이 사실상의 회장 대행을 맡게 된다. 미디어월의 46억원 채무 탕감도 관리 단체 미지정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관리 단체 지정에 따라 그대로 대한테니스협회 채무로 남게 됐다.

대한테니스협회는 “대한체육회 역사상 관리 단체 지정이 20번 있었는데 이기흥 회장 재임 시에 10번이 나왔다”며 “산하 단체를 선거 친위 세력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맹단체의 자율성을 탄압하는 ‘내로남불’이며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리단체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이기흥 회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에 대해 즉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손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사건이 보여준 스포츠 인권의 현주소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손축구아카데미 감독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 손웅정 감독 등은 아동학대로 학부모에 의해 고발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지난 2일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훈련 중 코치 등이 아동들에게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를 가격해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과 폭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손 감독 등은 해명문을 통해 "코치와 선수 간에 선착순 달리기에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무색하게 지난 6일 공개된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SON축구아카데미 경기 영상엔 손 감독 등이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 다른 영상엔 손 감독이 넘어진 아이를 걷어차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아동복지법에선 아동학대를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과 피해자의 증언을 보면 '아동학대'가 명백해 보이지만, 이 사건을 둘러싼 우리 사회 여론은 우려스럽다. 포털 사이트 등에 달린 댓글에선 '스포츠는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훈육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에선 피해 아동 학부모가 거액을 요구한 사실만 부각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묻히고 있다.

과거에도 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에 의한 인권 침해와 폭력이 논란이 되어 왔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노력이 이어져왔다. 특히 학생 스포츠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 12조를 통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12조에선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선수 보호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아카데미에선 여전히 나이 어린 선수들에 대한 아동학대와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폭력적인 지도방식에 학부모들도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부모의 동의하에 스포츠 지도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벌어졌다고 해서 이런 잘못이 용인돼선 안 된다.

SON축구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은 우리나라 스포츠 인권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에 아동학대를 용인하는 식으로 결말이 내려지거나, 사건이 흐지부지 무마된다면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인권, 아동 인권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엘리트체육의 산실,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6일(현지시각)부터 8월11일까지 펼쳐지는 파리올림픽은 206개국 약 1만 500여 명(32종목 329개 세부 경기)의 선수가 참가한다. 대한민국은 22개 종목에 선수 144명, 지도자 118명이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가, 4년간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국가대표로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대한체육회(KSOC) 소속으로 출전한다.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하여 각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발전 등 치열하게 경쟁하여 선발된 선수들만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올림픽을 대비한 강화훈련 등을 통해 국가대표로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거쳐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다.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전에 선수들은 누가, 어떻게 육성을 하고 있을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4년 마다 개최된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를 선발하여 강화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직전에 선발하게 되는 것이고, 평소에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소속의 학생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로 해당 팀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도 학생선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올림픽에 출전한다.

직장운동경기부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팀’을 말한다. 야구·농구·축구·배구 등 프로스포츠의 프로구단이 아닌 아마추어스포츠에서의 실업팀이 바로 직장운동경기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직장은 한 종목 이상의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기업체 소속의 직장운동경기부가 326개 단체 840팀이 운영되고 있다(2023년 기준, 대한체육회).

이러한 직장운동경기부 프로스포츠를 제외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가장 상위의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서 운동선수들이 직업으로서 직장개념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운동을 시작한 선수들이 초·중·고 및 대학교의 학생선수를 거쳐 직업인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선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직장운동경기부다. 매년 전국체육대회 및 각 종목별 대회 등을 출전하여 경기력 향상하고 지역 및 기업을 체육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즉,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성과를 내는 선수 및 지도자들은 평소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경기력을 향상하는 스포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직장운동경기부가 감소 추세에 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방공기업 등 80%, 공공기관 10%, 일반 기업 8%, 군부대가 2%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927개 팀이 840개팀으로 감소하였다(2023년 기준). 직장운동경기부는 대부분 비인기 종목으로 인기종목인 프로스포츠 대비 외부효과 측면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겸직금지, 스포츠 인권 강화 정책 등으로 표준계약서 도입이나 합숙금지 등 운영비용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자원 확보 애로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장운동경기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대표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이 되는 반면, 직장운동경기부는 운영비의 대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창단 후 최초 3년(장애인팀 5년)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하다. 이에 대한체육회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동·하계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창단지원 20개 단체, 24개팀, 운영지원 115개단체 367개팀, 2023년 기준,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는 운동선수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개념이다. 또한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자원을 육성하는 전진기지다. 직장운동경기부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고용효과 등 스포츠분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방소멸 등 지역균형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의 감소에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함에도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직장운동경기부 1개팀이 창단될 경우, 선수 및 지도자가 평균 18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고 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 2021.)

이러한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한다. 기존 3년(장애인 5년)을 10년 내지 운영하는 기간 내로 확대하여 대내적으로는 실업팀 창단기업 대상 세제혜택 유지 및 확대 → 실업팀 증가 → 신규 일자리 창출 증가 유도 → 지역경제활성화 → 지방소멸 예방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선수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 → 국제대회 성적 제고 → 국가브랜드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자원 확보 및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하여 지역 중심에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의 초·중·고·대학-직장운동경기부가 연계되어 안정적인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는 창단 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선택 등으로 창단된 경우가 많아 결국 타 지역에서 육성된 선수를 영입해 오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된 선수가 팀이 없어 타 지역으로 영입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직장운동경부가 지역 중심에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연고 개념 내지 지방의 향토기업 등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및 스포츠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부활성화 및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한 지역의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파리올림픽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최소규모라고 한다. 구기종목은 핸드볼(여자)이 유일하게 출전한다.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참여 중심의 스포츠정책의 변화에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등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파급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2018 평창올림픽 김연아 선수 경제적 파급효과 5조2000억, 현대경제연구소, 2014. 축구 손흥민 경제적 파급효과 1조9800억,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

파리올림픽의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해당 지역 및 기업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 등의 노력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지역 및 기업의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나 지도자가 누가 출전하였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한다.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해양스포츠전공) 교수

대한체육회 미래발전위원회 위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 위원
한국 e-스포츠협회 이사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이제까지 이런 올림픽 없었다... 모든 경기 AI가 된다 [세계한잔]

중앙일보
임선영 기자

2024.07.14

오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은 'AI(인공지능) 올림픽'이 될 전망이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첨단 AI 기술이 올림픽 경기장 안팎에서 활약하는 사상 최초의 올림픽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CNN은 "오랜 역사를 가진 올림픽이 이제 AI와 만나게 됐다"고 평했다.

'AI 캐스터' 나오고, 테러도 잡는다

파리올림픽 미국 독점 중계사인 NBC방송은 'AI 캐스터'를 선보인다. 최근 NBC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올림픽 캐스터 알 마이클스(79)의 전성기 시절 목소리를 AI에 훈련시켜 구현했다고 밝혔다. 이 AI 목소리는 NBC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제공하는 일일 하이라이트 영상의 내레이션을 맡는다. 이 영상들 또한 AI가 5000시간의 생중계에서 700만여 개를 뽑아낸다고 한다. 프랑스 당국은 AI 카메라로 테러 감지·예방에 나선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곳곳에 설치된 AI 카메라가 이상 행동, 비정상적인 군중 급증, 무기의 존재나 사용, 버려진 물건 등 8가지 상황을 감지하고 경찰에 경고를 보낸다.

프랑스 당국은 이런 AI 기술이 1996년 미 애틀란타 올림픽 테러, 2016년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와 같은 사태를 방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AI 카메라는 몇 달 전부터 프랑스의 기차역·축구장·콘서트장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다만,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이런 기술 도입에 대해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훗날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의 길을 열어줬다"며 비판하고 있다.

'AI 심판' 검토, 선수 비방도 AI로 모니터링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지난 4월 "IOC가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주도하겠다"며 '올림픽 AI 어젠다'를 발표했다. 우선 IOC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AI를 활용해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온라인 비방으로부터 보호한다. IOC는 AI 기술로 선수와 관계자의 계정 수천 개를 35개 이상 언어로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비방 메시지를 발견하면, 선수가 이를 보기 전에 미리 해당 글을 삭제하는 식이다. IOC는 "이 기술이 선수들에게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IOC는 체조 경기 등에 심판을 보조하는 'AI 심판'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AI가 체조 선수의 빠른 움직임을 분석해 회전수와 복잡한 동작의 정확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심판 보조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기술은 이미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의 체조 종목에 도입됐다. 체조계는 이 기술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AI 덕에 볼거리도 풍성해진다.

최근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인 오메가는 파리올림픽에 AI 기반 '컴퓨터 비전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카메라로 선수들을 실시간 추적해 경기 과정을 3차원(3D)으로 재현해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장대높이뛰기 선수와 바 사이의 간격, 체조 선수의 발 각도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예전처럼 선수들이 전자 태그를 부착할 필요 없이 광학 센서만으로 기량 계측이 가능하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중앙일보에 "AI 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 보는 재미가 커지게 됐고, 심판 보조로 활용하면 편파 판정 시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퍼뜨리는 딥페이크도 기승

한편 파리올림픽 관련 딥페이크(AI로 합성한 영상이나 이미지) 주의보도 내려졌다.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MS)는 친러시아 조직이 프랑스 언론을 사칭해 "테러 위협으로 올림픽 티켓의 24%가 환불됐다"는 딥페이크 영상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또 이 조직은 소셜미디어에 IOC를 비하하는 가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유포했는데, 여기엔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한 딥보이스가 삽입됐다. MS는 올림픽이 가까워질수록 딥페이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선수들은 파리올림픽에 '개인 중립 선수' 자격으로 출전은 가능하나 국기를 달 수 없어 이에 대한 반발로 이런 일을 벌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료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3285>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 통합 위한 촉매제로서의 배리어프리 스포츠

에이블뉴스
김최환 칼럼니스트 2024.07.09



최근 '건강'을 키워드로 생활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운동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는 '함께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스포츠의 즐거움을 장애인도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국가 스포츠 정책과 현대의 스포츠 트렌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의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를 지향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란 장애인, 고령자들도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생활 스포츠 종목에 참가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제4항에서는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을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스포츠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운동장, 용품, 규칙)을 개선하고 배려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프리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리어프리 스포츠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을 자신의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스포츠 참가를 통해 장애인은 자기 노력, 자존, 동료 간의 우애 등 사회 통합에 필요한 정신자세를 함양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의 흑백 화합을 대표하는 정책 중 하나가 럭비 월드컵 개최였다. 남아공에서 럭비는 백인들만 배울 수 있는 고급 스포츠였고, 남아공 흑인들은 럭비대표팀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면 오히려 상대 팀을 응원할 정도였다. 하지만 스포츠를 통하여 흑백 화합을 추구했던 만델라는 1995년 럭비 월드컵을 유치했고, 남아공 럭비대표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뉴질랜드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킨다.

특히 놀랍게도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 흑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럭비대표팀의 녹색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백인 주장에게 직접 우승 트로피를 건네는 장면은 큰 화제가 됐다. 이는 남아공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만델라 대통령은 흑, 백의 인종적으로 분열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 통합을 위한 촉매제로 스포츠를 사용한 것이다.

프랑스 테니스연맹 장 가샤생 전 회장은 2016년 대회 공식 신문 1호 3면 인사말에서 "스포츠는 국민의 마음을 응집시키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기능이 있다"며 "운동 중 운동인 테니스를 사랑해달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는 스포츠 이벤트로서 사회적 통합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 대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

다음 장 계속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

스포츠 인권 헌장은 체육 정책 관계자, 지도자, 운동선수 및 시민들이 알아야 할 스포츠의 참 의미와 신체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11조에서 스포츠는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특히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주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참여케 하며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한 집단 정체성은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들은 스포츠 교류로 정서적 공감대와 공동체 의식의 저변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제12조에서는 스포츠가 세계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스포츠는 인종과 민족, 성, 세대의 장벽을 초월하여 세계인이 교류하는 공용어이며 ▲스포츠 활동 참여는 이 공용어를 배워 세계인과 교류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스포츠 교류는 인류에게 동질감을 주며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공표했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장애 다양성 존중, 사회적 포용성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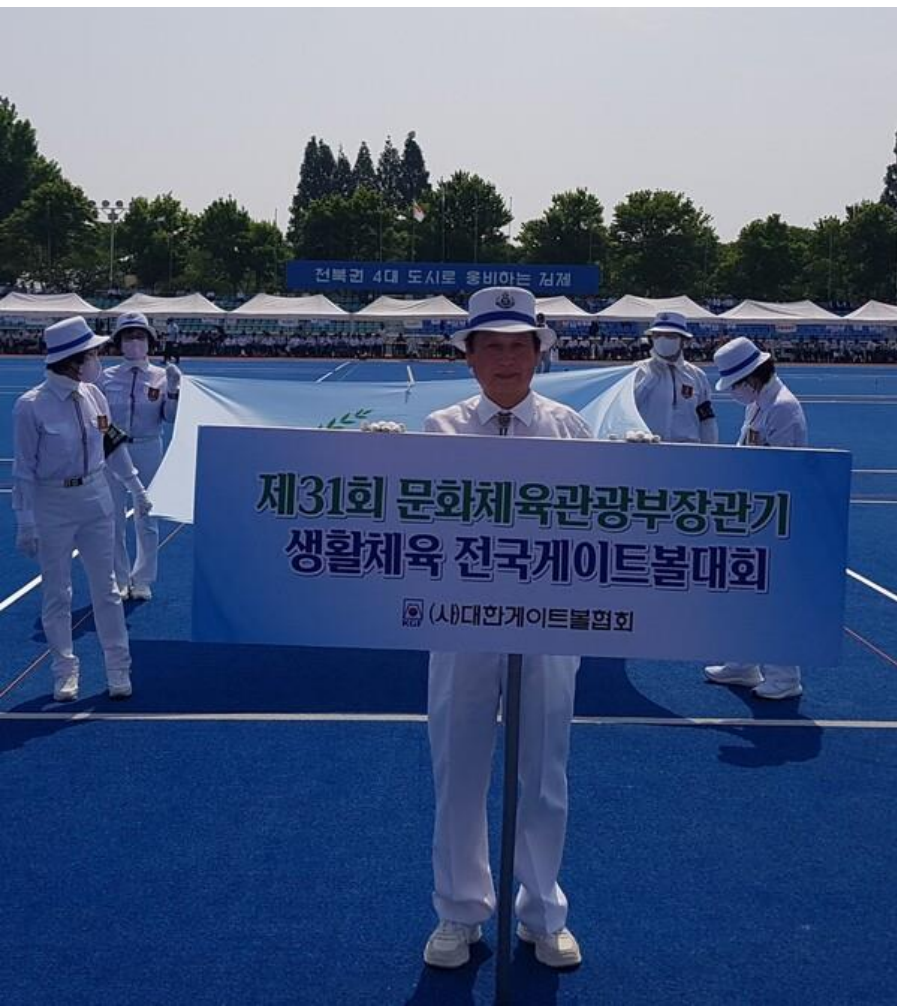
올림픽과 패럴림픽 같은 국제 행사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관중들을 한데 모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장소를 만든다. 이 대회는 각국의 문화가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스포츠를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장을 마련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운동하면서 장애 다양성을 인식하게 되고 스포츠맨십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다양한 인종, 성별, 나이의 사람들,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회는 일반 관중, 팬, 기업 스폰서,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포용력을 증진 시킨다.

배리어프리 스포츠는 사회적 연대와 단결 촉진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도 연대감을 제공한다. 공동의 관심사와 응원을 통해 사람들은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이 그 한 예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나 동네 스포츠클럽에 참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개선하고 배려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촉매제가 되는 배리어프리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문화의 저변 확대가 필수적이다.



주간 스포츠 소식

완도군 10월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준비 박차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479213>

교보생명, '40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개막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71510044106608>

"장난으로" 5살 심정지 빠트린 태권도장 관장 '구속'..혐의는 부인

<https://v.daum.net/v/20240714175802913>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 수상

<https://www.mbn.co.kr/news/sports/5041866>

경기도교육청, '대학 연계 체육계열 모의 실기 프로그램' 운영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83361/?sc=Naver>

체력 하락, 비만 증가...중구, 초등생 '일일 레슬링' 교실로 생활체육 확대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7141025001>

"옆에서 술 따르라"...체육회 여성간부가 남성 직원들 상습 성희롱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71114143872955>

'돌려막기'에 걸려들라...반복되는 체육시설 '먹튀'주의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407130027>

전주시, 육상경기장·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 '속도'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1067500055?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